

제 목	국 문	경기도 지역 저소득층 주민에서 혈중콜레스테롤, 공복시 혈당, 혈압이 심전도 이상에 미치는 영향		
	영 문	Total Cholesterol, Fasting Blood Glucose and Blood Pressure, and their Effects on Electrocardiographic Variables in Participants of Medical Aid Program, Kyunggi-do Provinc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최보율1), 박항배1), 윤배중2)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경기도청 보건과		
	영 문	Boyoul Choi, Hung-bae Park, Bae-Joong Youn Dept. of Preventive Med., College of Med., Hanyang Univ. Dep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Kyunggi-do		
분 야	역학	발 표 자	최보율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목적

경기도 지역 저소득층 주민에 있어 1) 비만지수, 총콜레스테롤, 공복시 혈당, 혈압 및 심전도상 이상의 분포를 파악하고, 2) 총콜레스테롤, 공복시 혈당 및 혈압 등이 심전도상 이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본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 1) 대상; 1991-93년 사이에 경기도 저소득층 집단검진사업의 대상이었던, 35-64세 주민 19,685명
- 2) 방법; 대상자의 체중과 신장으로 비만지수(BMI)를 산출하였으며, 총콜레스테롤(TC)은 효소법, 공복시 혈당(FBG)은 glucose oxidased를 이용한 효소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혈압은 간호사가 한차례 측정하였다. 심전도 검사는 4개 limb lead와 6개 chest lead로 심전도를 찍은 뒤, 1명의 내과 전문의가 판독하였다.

3. 결과

비만과 혈중 고콜레스테롤의 연령보정 비율은 남성보다(과체중: 3.31%, 혈중 고총콜레스테롤: 10.78%) 여성에서(과체중: 8.87%, 혈중 고총콜레스테롤: 11.79%) 더 높았고, 남녀간의 연령 유병률곡선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높은 공복시 혈당과 고혈압에 대한 연령보정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높았다. 비정상적 심전도 결과의 연령보정비율은 남성에서 9.55%, 여성에서 7.55%였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총콜레스테롤, 공복시 혈당, 혈압은 상호간에 양성의 연관성이 있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 혈중 고총콜레스테롤, 높은 공복시 혈당, 고혈압에 대한 비정상적 심전도 결과의 연령-성 보정 위험률은 각각 1.3(95% 신뢰구간=1.14-1.48), 1.22(95% 신뢰구간=0.98-1.52), 2.12(95% 신뢰구간=1.91-2.36)였으며,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 당과 혈압수준은 한국 일반 대중에서의 비정상적 심전도 결과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4. 고찰

우리나라 저소득층 주민에 있어서의 비만도, 총콜레스테롤, 공복시 혈당, 및 혈압 등의 허혈성 질환 위험요인들은 구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으며, 높은 연령층보다 낮은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총콜레스테롤, 공복시 혈당 및 혈압 등의 위험요인은 심전도 이상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들은 앞으로 이 저소득층 주민에 있어서도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